

聽衆의 必要에 맞는 說教

李 晶 熙

目 次

序 論	教의 目的
I. 聽衆의 必要에 맞는 說教를 해야 할 理由	III. 聽衆의 必要에 맞는 說教傳達 方法
II. 聽衆의 類別에 따른 必要와 說	結 論

序 論

說教는 하나님의 말씀을 聽衆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說教者는 聽衆의 必要를 의식하고 설교해야 하는 것이다. 現時代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청중의 필요에 맞는 설교를 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설교시간이 되었으니 말씀을 전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고 또 청중을 의식하기 보다는 설교자 본위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전달할 때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실에 직면해서 본 논문의 필요성을 찾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범위는 청중의 필요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할 이유를 간단히 진술하겠고, 청중의 類別에 따른 청중의 필요와 거기에 맞는 설교목적 을 고찰하고 청중의 필요에 맞는 설교 전달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교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청중 적응에 관한 문헌과 이 분야에 관한 신학적인 자료가 극히 실망적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것도 사실임을 느낀다.¹⁾

I. 聽衆의 必要에 맞는 說敎를 해야 할 理由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때 인간들의 狀況에 그 背景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의 역사서에는 민중의 지도자 즉 사사들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행한 영적 담화의 많은 표본이 수록되어 있다. 어느 경우에도 이들 담화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²⁾ 4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설교하셨음을 볼 수 있다.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실때 부터 예수님은 청중에 따라 적절하게 말씀하시었다.³⁾ 어부에게는 어부에게 적합하게, 농부에게는 농부가 알아 들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설교하신 것이다.

바울은 연설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응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 설교자는 말하는 환경이 다름에 따라서 자기 다른 청중의 필요에 따라 설교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1885년 한국에 복음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워지었으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은 백성들이 처(處)하여 있는 歷史的인 狀況에 따라 설교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설교가 회중의 요구와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는 노력을 1960년대 이후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부족하기 그지 없는 형편이라고 본다.⁵⁾ 설교자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곳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행해지는 곳은 바로 여기이다”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⁶⁾

¹⁾ 제이 애덤스, 「說敎研究」 박광철譯,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 86.

²⁾ 잉그베 브릴리오드, 「說敎史」, 홍성수역, (서울: 교문사, 1978), pp. 9

—10.

³⁾ 누가복음 4: 16ff.

⁴⁾ 애덤스, p. 92.

⁵⁾ 李雄一, “韓國敎會 說敎에 대한 現象學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神學大學 大學院, 1976, p. 95.

청중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설교는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도 사실이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청중의 필요를 무시하는 설교는 처음부터 청중의 귀를 막아버리는 설교가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II. 聽衆의 類別에 따른 必要와 說敎의 目的

說敎는 청중의 類別에 따라 그 필요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먼저 누가 청중인가? 를 생각해 보자. 설교자가 먼저 생각해야 할 청중은 人類를 지으시고, 罪에서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설교는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말”이다.⁶⁾ 설교자가 첫째가 되는 청중을 얻을 때 그는 다른 모든 청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가 첫째 되는 청중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그의 설교는 무력하게 되는 것이다.⁸⁾ 설교자는 하나님을 첫째가는 청중으로 늘 의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이처럼” 사랑하신 인간을 청중으로 늘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설교의 청중은 적어도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다. 설교자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먼저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권고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신자들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이다.⁹⁾ 참다운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인간으로

⁶⁾ D. M. 로이드 존즈, 「목사와 설교」 서문강譯, (서울: 예수교문서 선교회, 1977), p. 135.

⁷⁾ 루돌프 보렌, 「說敎學實踐論」, 朴根遠譯,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0), p. 152.

⁸⁾ Ibid., p. 153.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인간 관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바른 인간이 되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인간의 삶 전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복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새 인간 형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¹⁰⁾

청중이 處한 환경과 그들의 경험, 지식, 능력에 따라서 청중의 필요는 다양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여기서 청중의 필요에 따라 설교의 目的을 分明히 해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설교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生命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요한 10:10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목사-설교자가 일생동안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總目的이라 하겠다. 설교자는 위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추구해야 할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H. C. Brown, Jr은 설교의 主된 目的(major objectives)을 다음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¹¹⁾ 그것은 복음전도적 목적, 교리적 목적, 윤리적 목적, 봉헌의 목적, 원조적 목적, 경건의 목적이다. 사람들은 대개 위와 같은 6가지의 필요범주(範疇) 속에 들어 있다고 본다. 물론 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해석과 청중의 필요에 알맞게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6개의 主目的을 큰 범위로 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청중에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특수목적이다. 설교의 특수목적(特殊目的)은 하나의 주목적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특별한 청중에게 설교해서 얻기 원하는 뚜렷한 결과를 긍정적인 진술로 표시한 것이다.

⁹ 요한복음 10:10; C. 위스로프, 「설교의 本質」, 朴鍾森譯, (서울:韓國福音文書協會, 1977), p.117.

¹⁰ 朴根遠, 「오늘의 說教論」, (서울:大韓基督教出版社, 1980), p.23.

¹¹ H. C. Brown, Jr. *A Quest For Reformation In Preaching*,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68), p.137. H. C. Brown, Jr.; H. Gordon Clinard; Jesse J. Northcutt, *Steps Too The Sermon*(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63), pp.32-36.

여기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크게 구분되는 6개의 주된 목적을 특수목적과 연관시켜서 좀 더 살펴 보겠다.

1. 福音傳道의 目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필요한 설교목적이다. 福音傳道 설교는 복음을 모르는 자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福音을 소개하는 것이다.¹²⁾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를 다 가진다(롬 3 : 23). 사도행전 26 : 16—18에는 복음전도하는 바울의 사명을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설교자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음전도 목적의 범위에 속한 특수 목적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눅 15 :). 혹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한다”(롬 5 : 8)를 들 수 있겠다.

2. 敎理的 目的은 신자들이 성경의 사실과 교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한 예리한 식별력이 필요할 때에 행해진다. 체계신학, 성서신학, 모든 성경연구분야가 교리적 목적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¹³⁾ 설교자는 교인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 교리적인 목적은 성질상 홀로 쓰일 때는 別個의 목적이 되지만 다른 목적과 같이 쓰일 때는 다른 목적을 도우는 목적이 된다. 교리적인 主目的의 범위에 속한 특수목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생의 도리를 이해하게 한다”(요 3 :).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게 한다”(히 9 : 11—15).

3. 倫理的인 目的은 신자의 품행(conduct)을 바르게 강조하는데 있다. 윤리적인 목적의 본질은 관계(relationship)라는 말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⁴⁾ 기독교 윤리는 신자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에 기초해야만 한다. 즉 모든 인간관계의 표준은 기독교 원리에 의해서 지도되고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윤리

¹² Brown, *Steps to The Sermon* p. 16.

¹³ Brown, *A Quest For Reformation in Preaching.* p. 151.

¹⁴ Ibid., p. 169.

적인 설교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관계를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윤리적인 목적의 범위에 속하는 특수 목적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게 한다”(엡 6:1-2).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선한 일에 협력하게 한다(롬13:1-7).

4. 奉獻의 目的은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인격을 포함한 모든 자원(resources)을 하나님께 드리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봉헌의 목적은 하나님께 전체를 위탁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봉사하기 원하는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대개 30퍼센트 이하의 교인만 교회 책임의 약 99퍼센트를 이행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할 때 봉헌의 설교는 필요한 것이다.¹⁵⁾ 봉헌의 목적에는 교회 건축계획, 기관 프로그램 등 사업 증진을 위한 진흥적인 목적(promotional objective)이 포함된다. 봉헌의 목적의 범위에 속하는 특수목적은 예로들면 다음과 같다. “신자들이 헌신해서 주(主)를 봉사하게 한다”(눅 7:36-50). “신자들에게 헌금은 신자의 봉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한다”(고후 9:1-15).

5. 援助的인 目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를 도울 필요에서 생겨난 목적이다. 사람이 죽음, 질병, 사고, 실직, 실패, 실망, 배신당함, 오해, 시시로 당하는 수많은 좌절 등을 생각할 때 원조적인 목적의 설교를 할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로 부터 시시로 후원과 은혜의 힘을 얻을 필요를 느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¹⁶⁾ 이런 도움은 영적인 위로와 도움은 물론 물질적이며 심리적인 도움도 포함되는 것이다. 원조적인 목적의 범위에 속하는 특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겠다. “사별(死別)의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로함에 있다”(살전 4:13-18).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에게 신앙으로 처

¹⁵ Ibid., p. 185.

¹⁶ Ibid., p. 195.

병하게 용기를 준다”(마 8:14-17).

6. 敬虔의 目的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성장할 필요에서 생긴다. 이 목적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예배의 목적이라고도 부른다. 경건의 주제들은 기도, 찬송, 감사, 신앙의 기쁨과 아름다움, 성경 연구와 교회 출석의 가치와 유익, 신앙 성장의 필요와 가치,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 등의 일반적인 제목이 포함될 것이다.¹⁷⁾ 경건의 목적의 범위에 속하는 특수 목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신자는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살전 5:18). “신자는 생활로 예배드려야 한다”(롬 12:1-2).

청중의 필요에 맞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청중들의 現在狀況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청중의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 설교자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청중들의 형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청중의 문제점과 품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¹⁸⁾

Ⅲ. 聽象의 必要에 맞는 說教傳達方法

청중의 필요에 맞는 효과적인 전달에 대해서 논의할 때 먼저 설교자의 인격적인 자질(資質)에 대하여 논의한 후, 청중분석과 설교의 상황과 적절한 전달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說教者의 人格에 의한 설득력: 설교를 전달할 때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청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이어야 효과적으로 설교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일의 목적에 따라서 일꾼의 자격이 다르게 요청되는 것이다. 설교자의 일생의 일과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므로 설교자의 자격은 특별히 높은 자질을 요구하며 거의

¹⁷ Ibid., p.207.

¹⁸ 위스토프, p.101.

이상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⁹⁾ J. Daniel Baumann은 설교자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 영, 몸, 정신이 건강한 자, 훈련 받은 자, 동정적인 자, 겸손한 자, 용기 있는 자라고 말했다.²⁰⁾ 설교자가 설교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 특수한 자질은 꼭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체험적인 신앙인이어야 한다. 요한은 “보고 증거”했음을 알 수 있다.²¹⁾ “설교자의 말이 아무리 분명하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험에서 잉태된 확신으로 부터가 아니라면 참된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²²⁾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신앙적인 체험과 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누가 1:39-45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 뱃속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고 했다. 설교자가 中心에 예수를 모시고 말씀을 전할 때 침례요한 정도의 신앙을 가진 청중이 감동을 받아 응답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설교자는 겸손해야 한다. 설교자는 늘 높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영의 유혹이 찾아 들기 쉬운 것이다. 성경에 보면 침례요한은 겸손함에서 설교자에게 한 완전한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다. 침례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만족했음을 볼 수 있다.²³⁾ 설교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가리키는 “표지판”의 위치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한다.²⁴⁾

그 다음에 설교자는 성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

¹⁹⁾ 디모데 전서 3:1-7, 디도서 1:5-9.

²⁰⁾ J. Daniel Baumann,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2), pp.33-41.

²¹⁾ 요한 1서 1:2; 4:14.

²²⁾ 존 스탠트, 「설교자 像」, 문창수譯, (서울: 한국개혁주의신생협회, 1972), p.93.

²³⁾ 요한복음 1,7,8,15,19.

²⁴⁾ 스탠트, p.96.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1).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이 아니고서는 쓰시지 않으신다. 설교자의 人格은 설교의 生命이다. 어느 여배우가 생활은 탕녀같이 살면서도 무대에서 잔다크 역을 잘 해낼 수는 있으며, 어느 남배우가 탕아로 살면서도 무대에서 루터 역을 잘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의 생활과 설교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영력있는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에서 생기는 것이다.

2. 聽象分析: 설교자가 설교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청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청중에게 적합하게 설교해야만 하는 것이다. 청중 분석은 청중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특별한 분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1) 청중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일반 민중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현대 일반 민중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교자가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²⁵⁾ 첫째 현대인들은 도시화(urbanization)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인해서 비록 농촌에 주거하고 있는 자들도 정심은 도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전달(mass media)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산업화(industrialization)의 영향으로 비인간화의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인공 두뇌학의 시대(cybernetic age)에 처한 현대 인간은 그들이 기계에 의해 대치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기도 하며 비인간화의 경향이 있다. 셋째로 여가 혁명(leisure revolution)이다. 모든 종류의 억압이 현대 인간들에게 억압하고 있으므로 현대인들은 도시 생활과 고용살이의 요구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는 현상이 있다. 여가 혁명은 건전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일날 교회 안에 모이는 회중을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는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개인을 위한 관심이다. 산업화가 가져온 비인간화는 인간들로 하여금 고독과 공허감을 가

²⁵⁾ Baumann., pp. 47-51.

저오게 했다. 다섯째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communication revolution)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격언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다.²⁶⁾ 아리스토텔(Aristotle)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대해서 일찌기 그의 「수사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의 3대 요소 즉 연설자, 연설문, 청중으로 표현해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연구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지 암시하고 있다.²⁷⁾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를 shannon-weaver의 모델로서 다음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발신자(source), 기호화(encoding), 전달(transmission), 비기호화(decoding), 수신자(receiver)이다.²⁸⁾ 이런 요소들을 David K. Berlo는 다음 네가지 즉, 발신자, 메시지, 전달방법, 수신자로 정리하고 있다.²⁹⁾ 이 모델은 설교상황과의 관계에서 보다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요소인 발신자를 좌우하는 요인으로서의 의사전달의 기술, 태도, 지식, 사회제도,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다음,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요소, 구조, 내용, 방법, 기호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전달방법은 보고, 듣고, 만져 보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에다가 느낌까지 포함한 인간의 육감이 모두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신자를 좌우하는 요인도 발신자의 경우와 같이 의사전달의 기술, 태도, 지식, 사회제도, 문화적 배경 등이다.³⁰⁾ 이러한 현대의 의사전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설교를 한 역동적인 의사전달의 과정으로 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청중에 대한 특별한 분석: 설교자가 200명 혹은 그 이상의 큰 청중을 깊이 있게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교자가 그의 청중을 분석하는

²⁶⁾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New York: Signet Books, 1964), p.18. Cited by Baumann, p.51.

²⁷⁾ George E. Sweazey. *Preaching the Good News*(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6), p.48.

²⁸⁾ Ibid.

²⁹⁾ Baumann, pp.22-26.

³⁰⁾ 朴根遠, p.32.

일을 위해서 두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다.³¹⁾ 첫째 기계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흥미조사, 회원의 기록들, 설문서, 태도의 비율, 완전한 통계적인 정보 수집 등의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위한 도구 선택을 위해서 사회학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도구는 설교자의 감수성이다. 비록 설교자가 청중에 대한 지식을 기계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할 지라도, 설교자는 그의 청중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느끼는가를 계속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성이 있는 설교자는 사람들과의 상당 관계에서나, 교인들의 교회 활동에서의 피이드백(feedback)이나, 공적인 예배 반응은 물론 정규적인 심방이나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청중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스톤의 위대한 설교자 Philips Brooks는 그의 책으로부터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설교했다고 한다.³²⁾ 목사는 또한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는 교사, 사무원, 평신도들,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에 의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청중분석에 유용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설교자가 찾아야만 하는 사항은 청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가치, 신앙, 지배적인 감정들을 찾아야만 한다. 청중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를 살펴 보아야 한다. Jesse Jai Mc-Neil은 인간의 세가지 기본적인 충동을 언급했다.³³⁾ (1) 활동하려는 충동: 누구나 의미 깊고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2) 공동체에 소속하려는 충동: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람있는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은 인간성으로 타고 난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제 혹은 공동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3) 진정한 존재가 되려는 충동: 인간은 그 개성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문화의 수레바퀴 속에서 툽니바퀴들이 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다. 우리는

³¹ Baumann, p. 52.

³² Ibid.

³³ Ibid., p. 51.

인간이 아니라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의한 최고의 공헌인 것이다.

설교자는 200명의 청중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청중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떤 점에서 청중이 대표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점에서 평균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청중을 대하는 것이다. 이때 청중의 경험, 태도, 신앙, 동기, 습관적인 배경이 그들의 상호작용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참작해야 하는 것이다.³⁴⁾

특별한 청중 분석에는 3가지 국면이 있다. 그것은 설교전, 설교중, 설교후의 분석이다.³⁵⁾ (1) 설교 전 분석 : 먼저 청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연령, 성별, 결혼 상태, 주거, 직업, 수입, 학교, 소속 정당 등)를 알기 위해서 인구통계학적 분석(demographic analysis)을 해야 한다. 다음에 매주 특별히 그 분석에 알맞는 목적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 주제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와 경험을 생각해서 청중을 3가지 큰 그룹(지지 그룹, 중립 그룹, 반대 그룹)으로 나누고, 이런 구분에 의해서 그의 설교의 특수 목적을 정하는 지침을 삼을 수 있겠다. (2) 설교중 분석 : 청중의 태도는 설교 도중에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도중에 청중의 반응을 주의해서 관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청중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 얼굴표정, 웃음, 움직임, 속삭이는 적은 소리 등이 모두 설교자와 설교의 주제 혹은 목적에 대한 청중의 태도를 생생하게 나타내는 징후(symptoms)가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설교자는 이런 표시들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설교자가 청중의 신호들을 잘 대처할 때 그의 설교의 설득력은 증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자의 말 선택, 언어 사용방법, 설교 구조, 외관, 제스처, 음성의 특징에 영향을 받아서 청중의 태도는 변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런 점에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³⁴ Ibid., p. 53.

³⁵ Ibid., pp. 54-56.

설교자만 청중의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청중의 크기, 그룹의 느낌, 예비적인 조화, 동질성, 질서, 공통점, 대립 등에 의해서 청중 각자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 전달할 때 청중 분석을 잘 해서 분명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3) 설교 후의 분석 : 많은 설교자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의 청중을 방문한다. 이런 방문은 가치가 있다. 지각있는 설교자는 신호들과 도움의 요청, 더 설명해야 할 필요, 경향, 느낌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교회 문앞에서 인사하는 시간은 목사와 교인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설교의 효과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며, 비록 설교자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설교일지라도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여기서 청중분석에 대한 몇가지 암시를 생각해 보겠다. 우선 위치에 대한 고려는 청중분석에 중요한 측면이 된다. 우선적인 것은 지역적인 일치감을 만드는 것이다.³⁶⁾ 빌리 그래함은 그의 전도집회에서 이 지침을 따른다. 그는 항상 매 전도집회를 그 지역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일치감을 조성하고 그의 청중을 이끌곤 하였다. 지역적인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모인 빌리 그래함 전도집회 설교를 보면 한국적인 예화를 많이 사용하므로 한국인과 일치감을 조성해서 관심을 끈 사실을 볼 수 있다.³⁷⁾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중과 동일시하며 동시에 청중의 공통된 역사적 사실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 “형제들” “우리 조상들”과 같은 용어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말들이다.³⁸⁾ 다음에 균일설(uniformitarianism)을 생각할 수 있겠다. 강단에서 신자의 경험을 판에 박는 경향이 있다. 주의깊은 청중분석은 하나의 탁월하게 공통되는 표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부인하게 한다. 신자의 은혜는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³⁹⁾ 그 다음에 어린이를

³⁶⁾ Ibid., p. 56.

³⁷⁾ 이권찬역 「전도학교」, (서울 : 보이즈사, 1973), pp. 32, 39, 54, 55, 76.

³⁸⁾ 에덤스, p. 97.

³⁹⁾ Baumann, p. 56.

생각하는 설교를 고려해야 하겠다. 설교자는 간략하게 하고, 옷점적으로 설교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간결함은 모든 설교자가 시도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일인데 특히 청중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해서이다. 어린이를 생각에 두는 설교는 옷점적으로,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린이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다. 청중이 듣기 원하는 것은 용서, 사랑, 희망, 평화, 확신, 삶의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인 것이다.⁴⁰⁾ 이와 같은 청중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별한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으로 설교자는 청중의 상황에 알맞게 전달해야 하겠다.

3. 설교의 狀況 : 예배환경이 설교전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설교는 역사적으로 예배의 한 순서로 되어져 왔다.⁴¹⁾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드릴 때 설교의 효과도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사야 6:1-8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진정한 예배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응답을 하게 했음을 볼 수 있다. 기록하신 하나님을 뵈고 죄사함의 경험을 한 후 하나님의 “누구를 보낼꼬”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즉시로 “날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훈련받은 예배 인도자가 예배순서를 잘 준비해서, 좋은 찬양대를 갖추고, 좋은 교회 시설(적당한 강단 높이, 의자배열, 온도, 음향시설 등)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전달 효과는 크게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또한 청중의 참여가 중요하다. 청중의 들어움이 설교전달에 효과가 크다. 설교자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매우 평안하고, 전달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나, 어떤 경우에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다. 그것은 청중들의 반응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4. 설교의 전달 방법 : 설교의 기술, 내용, 전달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진한 구조가 내용의 부족을 보충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다른 면에서 일반적으로

⁴⁰ Ibid., pp. 56-57.

⁴¹ Ibid., p. 61.

설교의 효과를 향상한다. 잘 의도된 구조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타이밍(timing), 전진, 균형의 감(sense)을 설교자와 청중이 다같이 세우도록 도와줄 것이다.⁴²⁾ 그러므로 설교자는 적절한 설교전달을 위해서 먼저 이미 연설가들에 의해 유용하다고 인정된 구조들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연역법, 귀납법, 심리적인 방법, 극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다.⁴³⁾ 다음에 좀 더 최근에 실험되고 있는 형태들을 연구 적용해야 하겠다. 그것은 대화적인 설교, 드라마, 각가지 미디어(mixed media), 시각적인 것(visual)이 있다.⁴⁴⁾ 복음은 변함이 없으나 복음전달의 방법은 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 전달 방법에는 언제나 신선하고 활기있어야 하겠다. 설교자는 한가지 방법 이상의 방법을 설교할 때마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절대 필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언제나 융통성 있게 전달을 향상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結 論

설교형식이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설교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성경말씀으로 해결하도록 말하는 것이다. 現時代는 哲學思想이 외연적인 데서 내면적인 데로 움직이고 있으며, 세계정부를 세우려는 추세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도 변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설교 聽衆들의 必要는 이전 인류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聽衆들에게 알맞는 說敎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성경에 나타난 청중적응의 설교를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겠다. 설교자는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여러 부류의 청중들의 필요에서 따

⁴²⁾ Ibid. , p. 76.

⁴³⁾ Ibid. , pp. 76—82.

⁴⁴⁾ Ibid. , pp. 82—85. 朴根遠, pp. 41—42.

러오는 설교의 목적들을 分明히 해서 적절한 설교를 해야 하겠다. 이러한 설교의 목적은 크게 6가지 主된 目的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그것은 복음전도적 목적, 교리적 목적, 윤리적 목적, 봉헌적 목적, 원조적 목적, 경건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런 主目的 가운데서 하나의 목적으로 설교할 때 일정한 때에 일정한 청중들로부터 얻기 원하는 결과를 특수한 목적으로 일컬었다.

청중의 필요에 맞는 전달 방법은 먼저 설교자의 인격이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설교자는 적어도 세가지의 특수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체험적인 신앙, 겸손함, 성결함인 것이다. 설교자는 聽衆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특수한 분석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청중에 알맞는 설교전달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설교가 예배순서의 한 부분인 이상 적절한 예배 준비와 인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나 말씀 전달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알맞는 설교전달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충성해야 하겠다.

參考文獻目錄

- 朴根遠. 「오늘의 說教論」.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0.
 보렌, 루돌프. 「說教學實踐論」. 朴根遠譯,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0.
 브릴리어드, 잉그베. 「說教史」. 홍정수譯, 서울: 교문사, 1978.
 스타트, 존. 「설교자 像」. 문창수譯,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생협회, 1972.
 애덤스, 제이. 「說教研究」. 박광철譯.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위스로드, C. 「說教의 本質」. 朴鍾森譯. 서울: 韓國福音文書協會, 1977.
 이권찬편. 「전도학교」. 서울: 보이스, 1973.
 존즈, D.M. 로이드. 「목사와 설교」. 서문강譯,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7.
 李雄一. “韓國教會說教에 對한 現象學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神學大學大學院, 1976.

- Baumann, J. Daniel.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reach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2.
- Brown, H.C. Jr. *A Quest For Reformation In Preaching*.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68.
- Brown, H.C. Jr.; H. Gordon Clinard; Jesse J. Northcutt, *Steps To The Sermon*.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63.
- Sweazey, George E. *Preaching The Good New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6.